

##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가정자원이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장 윤 옥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정 서 린\*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강사)

본 연구는 가정내에서 치매노인을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여 주부의 가정자원이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들에서 주요한 스트레스 감소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는 가정자원이 치매노인 부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부양주부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요인인지를 검증하고, 구체적으로 다양한 영역의 가정자원이 부양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자원을 객관적으로 측정가능한 객관적 가정자원(주부의 연령·학력·취업여부, 월소득), 객관적인 가정자원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인 가정자원적정도지각(인적·물적·지역사회자원적정도), 친·인척들로부터 받는 사회적지지 자원(경제적·심리적지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는 심리적 자원(통제소재), 그리고 가족체계자원(응집성, 적응성)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에 적합하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가정자원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계수가 .69 ~ .93 사이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근거로 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소재를 먼저 조사·파악한 다음 연구자가 치매노인 부양주부들과 직접 접촉하여 개인적인 가정상황을 파악하고,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그 후 상황에 따라 부양주부에게 질문지를 직접 전달·응답하도록 하거나 회신용 봉투와 우표를 동봉한 질문지를 우편으로 보내 응답하게 하였다. 회수된 자료 162부 중 부실기재 되었거나 미혼자녀가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총141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여 요인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가족의 응집성( $\beta=.275$ ), 친·인척들의 심리적지지( $\beta=-.243$ ), 가족의 월소득( $\beta=.238$ ), 인적자원적정도지각( $\beta=-.233$ ), 통제소재( $\beta=-.222$ )의 순으로 부양스트레스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가족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친·인척들의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할수록, 인적자원적정도지각이 낮을수록, 그리고 외적통제성이 높은 주부일수록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 부양주부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각 가정자원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어느 한 영역의 가정자원이 치매노인 부양스트레스의 감소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각 가정자원이 거의 유사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치매노인 부양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때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가정자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이들 가정자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가구특성별 가계경제수지 분석

양 세 정\*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조교수)

성 영 애 (인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본 연구는 가구특성별 가계경제수지를 분석, 비교하고자 한다. 가계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왔다. 우선 소득과 소비지출, 부채와 자산규모까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형태의 재무비율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며(최윤지 & 최현자, 1998; DeVaney, 1994 등), Miller & Montalto(1998)는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의 노인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비교하면서 가계소득, 소비지출, 금융자산, 1인당소득, 동등화소득규모 등을 비교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보다 단순한 방법인 가계소득과 소비지출규모를 통해 경제적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계청에서는 가계경제수지분석이라는 이름 하에 가계소득, 가처분소득, 소비지출규모, 평균소비성향, 흑자액, 흑자율 등의 자료를 통해 가계의 경제수지를 파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계경제수지를 다양한 가구특성별로 분석,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가계경제수지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어떠한가? 2) 가구특성별 가계경제수지상태는 어떠한가?

본 분석을 위해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사용하며, 각 특성별로 제시된 소득과 소비지출에 관한 평균자료를 사용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재가공되었다. 시계열자료분석을 위해서는 1980년에서 1999년까지 20년 동안의 자료를 사용하였고, 가구특성별 가계경제수지상태 비교를 위해 1999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1980년에서 1999년까지의 20년동안 가계가처분소득의 증가와 함께 평균소비성향은 점차 감소하였다. 이러한 추이는 1998년 당시 불투명한 경제전망에 따른 사회전반적인 소비위축과 맞물려 최고조에 이르러 가처분소득의 30%이상을 흑자율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듬해인 1999년 소비가 다시 활성화되는 추이를 보여 평균소비성향이 25.1%로 회복되었다.

가구특성에 따라 가계경제수지는 차이를 보였다. 먼저 사무직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73.6인 반면 생산직가구는 76.3으로 다소 높았다. 소득5분위의 가처분소득은 1분위의 5.36배였으며, 5분위의 평균소비성향은 61.0에 불과해 이들 집단의 월평균 흑자액이 151만 9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맞벌이와 비맞벌이가구를 비교해보면 맞벌이가구의 가처분소득이 242만5천원으로 비맞벌이가구의 190만6천원에 비해 51만9천원이 많았으며, 맞벌이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아 비맞벌이가구에 비해 높은 흑자율을 보였다. 한편 가구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흑자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세가구의 흑자율이 27.8%로 여타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흑자율이 U자 모양을 보였는데, 가구주가 45-49세인 경우 가장 낮은 흑자율인 19.5%였으며, 이후 흑자율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연령이 30세미만인 경우는 소득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치의 평균소비성향을 보였다. 또한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수준이 높았으나 평균소비성향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통신소비자 이용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sup>+</sup>

여 정 성\*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이 기 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박 수 경 ((주)태평양 마케팅부문 과장)

이 성 립 (통계청 사회통계과 사무관)

본 연구는 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와 통신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의 정립에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상품 구입과 사용시의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건전한 통신이용문화의 정착을 위한 소비자교육 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정보통신서비스 중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유선전화, 이동전화 그리고 온라인서비스로 한정하였다. 연구내용은 우선 각 상품군의 시장현황, 서비스 내용, 요금체계를 각각 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상품 구입과 사용상의 소비자문제를 파악하였다. 이 문제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각 상품군의 약관을 내용상, 체계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불공정약관조항을 중심으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문제를 다시 정리하였다. 또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기제를 관련 법제와 관련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외국의 정보통신서비스 소비자보호 관련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해결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정책적 측면과 소비자교육적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 제언의 기본 방향을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정보통신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과잉경쟁에 따른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 및 서비스 품질 향상 미흡을 지양함으로써 바람직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자능력의 향상과 책임있는 서비스 사용자로서의 역할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설정하였다. 또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정부, 기업, 소비자대표를 포함한 정보통신소비자보호협의회(가칭)를 구성할 것과, 정보통신서비스 업종별로 표준약관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 제도의 보완으로는 관련법 규정의 보완과 피해보상체계의 구축을 제시하였다. 또 통신위원회의 기능 제고방안으로 조직체계를 재정립하고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기준을 개발하는 등 예방적 규제를 강화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규제기능을 조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바람직한 통신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교육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인 정보통신 소비생활을 유도하여 정보통신 대중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건전한 통신소비문화를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소비자교육 방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소비자교육의 장·단기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교육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하여 정보통신전문 소비자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 본 논문은 1999년도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학술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생활설계사의 업무특성과 직업만족도 분석

이 은 희\*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제 미 경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부교수)

신 상 현 (계명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생활설계사들의 업무관련 특성과 자아존중감의 경향을 파악하고 둘째, 생활설계사들의 영역별 직업만족도와 전반적 직업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하고 셋째,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S생명보험회사의 대구 전지역 생활설계사 2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SPSS Win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단계별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설계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3,40대(87%)의 기혼여성(85%)으로 고졸(58%)이 가장 많았고 반 정도가 100-200만원(48%)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2. 업무관련 특성으로는 평균 관리고객수가 171명, 월평균 고객관리비용이 약 29만원, 월평균 신계약건수가 약 6건, 월평균 신계약액수가 약 77만원, 하루평균 방문고객수가 약 7명, 활동한 기간은 평균 3년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수행 중 애로사항으로는 활동노하우 부족(30.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업무지식 부족(14.5%), 활동능력 부족(13.5%),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13.1%) 등으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은 일반자아, 사회자아, 가정자아, 직업자아 중 가정자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3.98) 직업자아가 가장 낮게(3.53) 나타났다.
4. 영역별 직업만족도는 동료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게(5점척도상 3.72)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상관에 대한 만족도(3.67), 직무자체 만족도(3.65), 급여만족도(3.62), 승진만족도(3.04), 근무환경 만족도(3.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 직업만족도는 5점척도 환산시 3.35점으로 나타났다.
5. 직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①직업자아 ②생활설계사 직종에 대한 전망(사회적 위상제고) ③생활설계사의 위상에 대한 지각 ④생활설계사 시작동기 ⑤생활설계사 직종에 대한 전망(업무가 활발해질 것)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47.4%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주로 여성들의 직업영역인 생활설계사의 직업자아 및 승진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고 위주의 가정방문 판매방식을 지양한 업무의 전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업무능력 축적으로 직업에서의 성취와 직업자아를 정립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업무전문화의 필요성은 업무수행 중 애로사항에서도 나타나며 업무의 전문화는 생활설계사의 위상과 앞으로의 전망을 제고시킴으로써 직업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한편 한국소비자학회에서 수여하는 소비자재무설계사 자격인증 소지자들이 진출가능 분야중 생활설계사 직종에 진출하기 꺼려하는 이유는 현재의 직업적 위상과 업무가 과학화, 전문화되지 못한 것에 큰 이유가 있으므로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내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업무의 전문화를 통한 생활설계사의 위상제고가 절실하다.

## 대학생의 환경의식적인 식생활행동에 관한 연구

정경옥\*, 윤지현, 유두련 (대구효성기톨릭대학교 생활환경학과)

본 연구는 미래사회에서 환경보존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환경의식적인 식생활행동은 어떠한가를 알아 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인의 식생활습관은 가정에서 부모의 식생활 태도 및 행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이는 그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의 환경의식적인 식생활행동은 이들이 거의 매일 이용하게 되는 교내식당에서의 잔식정도를 통하여 알아 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부모의 환경의식적인 식생활태도 및 행동은 자녀의 환경의식적인 식생활태도와 행동(잔식정도)간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둘째, 자녀의 환경의식적인 식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무엇이며 셋째, 부모의 환경의식적인 식생활관리태도와 행동에 따른 자녀의 환경의식적인 태도수준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넷째, 교내식당 이용시 잔식의 이유(음식의 품질, 식당관리체계, 개인적 이유, 환경의식적 이유)에 따라 각 변인의 특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가 등을 알아 보고자 한다. 자료는 대구·경북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였으며 총 36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사후검증 그리고 중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모의 환경의식적인 태도 및 환경의식적 식생활관리행동에 따른 자녀의 환경의식적 태도수준 및 환경 의식적 식생활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부모의 환경의식적 식생활 관리행동 과 자녀의 환경의식적 태도수준과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2. 부모의 환경의식적인 태도와 환경의식적인 식생활관리 행동이 자녀의 환경의식적인 태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자녀의 환경의식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는 부모의 환경의식적인 식생활관리태도( $P<.01$ ), 부모의 환경의식적인 식생활관리행동( $P<.01$ ), 어머니의 학력( $P<.01$ ), 어머니의 연령( $P<.05$ ) 순으로 나타났다.
3. 부모의 환경의식적 식생활관리 태도와 행동에 따른 자녀의 환경의식적 태도수준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녀의 환경의식적인 태도수준은  $P<.01$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부모의 환경의식적 식생활관리행동은 자녀의 잔식이유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주도 대학생의 외식 소비행동

정은정\* (고산초등학교 영양사)

김정숙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이 연구는 제주도 대학생의 외식 소비행동을 파악하고 외식 소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작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1999년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533부가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7.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고 빈도분석, 백분율,  $\chi^2$  검증, t 검증, 일원분산분석, Scheffe의 다중범위검증 방법이 이용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외식횟수는 주 1-2회가, 월외식비는 5-10만원 미만이, 1회 외식비용은 1-5천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아침은 과반수가 넘는 63.6%가 전혀 외식을 하지 않았으나 점심은 10.5%, 저녁은 1.7%이었다. 외식 정도는 점심과 저녁 모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높았으며 저녁은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았다.

둘째, 외식동기에서는 아침은 대부분 끼니해결(84.6%)을 위해서, 그리고 점심은 끼니해결(71.7%)과 친구 만남(25.8%)을 위해서 외식을 하였으나, 저녁은 친구 만남이 4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끼니해결이 28.9%, 모임이 19.4%이었다. 아침외식은 식사의 본질적 기능의 성격이 강하였으나 점심외식은 본질적 기능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저녁외식은 사회적 성격이 강한 경향을 나타냈다. 아침과 점심외식동기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저녁외식은 주거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자취하는 학생들은 끼니해결을 위해서, 자가의 학생들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셋째, 외식시의 목적은 아침과 점심은 모두 영양보충이 각각 37.8%와 34.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아침은 시간절약이 27.4%, 친목도모가 17.2%이었고 점심은 친목도모가 21.6%, 시간절약이 20.7%이었다. 저녁은 친목도모가 6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맛을 즐기기가 19.1%, 영양보충이 13.8%이었다. 저녁외식은 대인관계형성을 위한 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아침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점심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저녁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점심외식에서는 남학생은 친목도모를, 여학생은 영양보충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었으나 저녁외식에서는 남학생은 영양보충을, 여학생은 맛을 즐기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점심외식에서는 연령이 많은 대학생들은 친목도모를, 연령이 적은 대학생들은 영양보충과 맛을 즐기는 경향이 높았다.

다섯째, 외식만족도는 주거형태와 식사소비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식사시간에서는 10분 미만의 짧은 경우보다는 10-30분 미만이 만족도가 높았으나 주거형태에서는 하위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대학생의 태도 및 일본상품 구매행동

유 혜 경\* (인천대학교 의생활학과 교수)

성 영 애 (인천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최근까지 우리 나라와 일본간의 문화적 교류가 인위적으로 제한되어 왔었으나, 1998년 10월에 이루어진 1차 일본대중문화 개방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문화의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에 대해서는 문화계와 청소년에 미칠 영향과 경제적인 파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일본문화 개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고 오히려 질 좋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일본문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일본대중문화 개방의 영향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1)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일본상품의 이용이 미치는 문화적 영향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 (2)일본상품의 구매행동을 살펴보고 (3)이 변수들과 자민족중심주의와의 관련성을 밝히며, (4)이러한 사항들을 성별에 따라 비교하였다. 문화 개방의 영향에 대한 태도, 일본상품의 구매행동은 11개의 일본상품이나 서비스 품목에 대해, 선행 연구를 기초로 개발한 5점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자민족중심주의는 Shimp & Sharma(1987)가 개발한 5점 척도인 CETSCALE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총 734부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1)일본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이 우리 나라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정도(2.96점/5점이 매우 긍정)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으로(2.62점)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본상품을 구매하는 정도는 가끔 구입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2.23점/5점이 매우 자주 구입). (3)일본상품의 이용이 미치는 문화, 경제적인 영향에 대한 태도와 구매행동은 자민족중심주의 성향과는 모두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은 구매행동보다는 태도변인의 관련성이 높은 편이었다. (4)일본상품의 사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편이었다. 반면 문화적 영향력에 대한 태도나 일본상품의 구매행동에 있어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일본상품의 구매행동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전면적이 개방을 앞둔 일본대중문화에 대해 대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반응을 보여주는 매개변인을 찾아내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 도시 주부의 구매시간 사용 및 영향요인

두 경 자\*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도시주부의 구매시간과 구매유형별 선호동기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도시주부의 매장 방문 구매시간의 여가적 효과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서울시 거주 주부 343명을 대상으로 시간일지법을 이용한 생활시간 조사표(평일, 토요일, 일요일)와 구매유형 선호동기, 시간지각 및 제약인지도,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보는 설문조사(2000, 5, 1 -20)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 후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산술 평균, 표준편차, 중다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은 국민생활시간조사(1991, 1995)와 비교해 볼 때 생리적시간은 유사하게 가사노동시간은 평일은 적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많게 나타났으며(1991) 수입노동시간은 평일은 유사하게, 토요일, 일요일은 적게, 여가시간은 평일과 일요일은 적고, 일요일은 유사하게 나타났다(1995).
2. 시간지각유형은 혼합형이 가장 많았으나 시간지각유형에 따른 구매시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시간제약인지도는 시간부족을 인지하는 주부일수록 구매시간이 짧았다.
3. 인터넷/통신 1일 평균 구매시간은 18분, 매장방문 1일 평균 구매시간은 1시간 8분이었고 매장방문 구매목적은 기분전환, 상품직접확인 순이었다.
4. 인터넷/통신 구매시간의 영향변인은 교육수준, 가사노동시간, 수입노동시간, 여가시간이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 수입노동시간, 여가시간이 적은 주부일수록 인터넷/통신 구매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5. 매장방문 구매시간의 영향요인은 남편의 직업, 시간제약 인지도, 가사 노동시간, 수입노동시간, 여가시간이었다. 남편의 직업이 전문직, 공무원, 사회단체직인 주부가 시간제약이 적은 주부일수록 가사노동, 수입노동, 여가시간이 적은 주부일수록 매장방문 구매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제약이 적고 가사노동시간, 수입노동시간, 여가시간이 적은 주부의 매장방문 구매시간이 길고 구매목적이 기분전환인 점을 고려할 때 도시주부의 매장방문 구매시간은 여가적 보상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정보화가 가정생활 구조에 미친 영향

-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

정 서 린\*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이 연 숙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본 연구는 정보화라는 사회변화에 대해 정보화와 정보사회가 무엇이고 이로 인해 가정생활구조가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학문의 연구물,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보화는 정보통신기들이 생활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며, 쌍방향 상호작용이 시사하는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탈 대중화 다원화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상대적 가치와 개인의 개별성과 독립성이 존중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네트워크로 소통성, 상호연계가 강화되면서 사람들과 열린 관계가 형성되고, 협동의 원리가 강조되는 현상이다. 즉, 개별성과 공동성이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조화롭게 추구되는 과정인 것이다.

정보화로 인한 가정생활구조의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1) 가족문화구조는 전통적인 위계적 불평등이 의미를 상실하고, 다원적인 독립성과 주체성을 인정하며, 평등의 가치 속에 가족 구성원 각자의 삶의 질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 생활수단의 변화로는 첨단 멀티미디어와 정보통신기기로 홈 네트워크 구축됨으로써 가정정보화가 실현되어, 가족 구성원의 생활의 향상을 도모한다. 3) 가계경영구조에서 정보화로 인해 평생직장개념이 사라지면서 가계는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게 되었고, 여성 취업의 보편화로 소득원천이 다양해져 간다. 한편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 요구, 교육연한이 연장됨에 따라 가계의 교육비 지출이 꾸준히 계속된다. 그리고 소비구조에 있어 교육, 교양, 오락비 지출이 증가함을 보인다. 4) 생활시간 구조의 변화로 노동시간의 감소와 여가시간의 증대를 들 수 있다. 컴퓨터 이용에 따라 생활시간도 변화하게 된다. 5) 가족관계구조변화는 먼저 성차별이 완화되며, 가족성원이 고립화되고 의사소통양상이 네트워크 형태로 변화한다. 한편 가족권위구조도 변화하고,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부모는 자녀교육과 통제능력을 위협받는다. 자녀관이 변화에 따라 새로운 양육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6) 가정생활공간은 주거 공간 내에서 개별성과 선택성, 공간 이용에 있어 유연성을 추구하는 한편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개방성과 공동성을 실현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보화시대 가정생활구조변화의 실체를 '개별성'과 '공동성'이라는 두 축으로 인식한다. 결국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서 가정이 지향해야할 방향은 이러한 '개별성과 공동성의 조화로운 추구'이다. 정보화로 인한 가정생활구조의 변화는 가정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면, 정보화가 지향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치 안에서 정서적, 심리적 만족과 효과적인 재생산을 담당하는 사회조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비교 연구

김 효 정\*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가족·소비자학과 조교수)

김 미 라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재택근무는 가정과 직장이라는 양립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혼여성들에게 가정생산 활동과 소득창출 활동을 같은 공간에서 수행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재택근무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수준이어서 이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생활 영역 중 하나인 식생활의 가사노동시간을 중심으로 하여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를 비교분석해보았다. 본 연구를 위해 부산 및 경남에 거주하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1999년 9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설문지와 시간일지 기록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부실기재를 제외하여 기혼여성 재택근무자 165부, 직장근무자 292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 검정,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요일별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해보았을 때,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직장근무자에 비해 재택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많았는데, t 검정 결과 이들 집단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평일의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평일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많았으며, 직장근무자의 경우 연령이 많을수록 식생활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에는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닐수록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길었고, 직장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근무시간이 짧거나 연령이 많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수록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의 경우 기혼여성 재택근무자에게 있어서는 일요일 근무시간이 짧고 편의품을 적게 이용하며, 연령이 많고 교육수준이 낮으며 가정 내 돌봐야 할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반면, 직장근무자에게 있어서는 가족수가 많고 연령이 많으며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고 있고 일요일 근무시간이 적을수록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이 길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택근무자와 직장근무자의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근무시간이 대체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가용성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시장노동에 많은 시간을 참여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이용가능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역할태도가 식생활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지닌 경우 가사노동은 주부의 일차적인 책임이라는 의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 초등학생의 용돈관리에 관한 연구

김 효 정\*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가족·소비자학과 조교수)

과거의 아동은 자유재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소비생활의 주체로 여겨지지 못했으나, 오늘날 아동은 자신의 욕구와 선호에 따라 독립적인 소비활동을 하는 소비자로 인식되고 있으며 가족의 구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로 여겨지고 있다. 아동은 부모로부터 용돈이라는 명목하에 금전을 지급받게 되는데 아동의 용돈관리 경험은 아동이 소비자기능의 수행경험을 쌓는데 있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화폐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의 형성이 성인기의 소비자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용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용돈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함으로써 아동의 금전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2000년 7월 19일부터 7월 20일까지 경남 김해시의 초등학교 4, 5, 6학년 55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여 506부의 응답을 본 연구의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Cronbach's Alpha 신뢰도 검증,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동의 용돈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용돈은 주로 어머니로부터 받고 있었고, 한달에 받는 용돈의 액수는 15,000원이 가장 많았으며, 아동이 용돈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곳은 군것질이었다고 58%의 아동이 자신의 용돈사용태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쓰며 낭비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아동의 용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의 상관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서, 아버지의 연령은 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독립변수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어머니의 연령·교육수준·직업, 아버지의 교육수준·직업, 월가계소득, 아동의 연령·성별·출생순위), 용돈의 액수, 또래집단과의 의사소통 정도, 대중매체관련변수(TV 시청시간, TV광고 인지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소비자사회화 기능에 대한 변수(소비에 대한 아동과의 의사소통, 대중매체에 대한 중재, 구매시 아동참여 유도, 소비시 아동 의사반영)가 포함되었으며, 종속변수는 용돈관리를 계획과 수행의 2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용돈계획의 중회귀분석 결과 부모가 소비에 대하여 아동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거나 대중매체에 대한 중재를 많이 할수록 아동이 용돈계획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행의 중회귀분석에 있어서는 소비에 대한 아동과의 의사소통, 아동의 연령과 성별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소비에 대해 아동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거나 아동의 연령이 낮고, 여학생인 경우 합리적으로 용돈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들 결과는 아동의 용돈관리에 대한 학습이 가정에서 부모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는 아동과의 풍부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아동에 대한 금전관리교육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 청소년의 공간 및 정보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박 미 석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 정 우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 명 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계 선 자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김 경 아\*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본 연구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공간환경과 정보환경의 유해실태를 파악하고 청소년 문화를 선도하는 유익환경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조사는 개인별 면접을 통한 예비조사를 거쳐 1999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전국 130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공간환경을 청소년들의 인지도에 따라 유익시설과 유해시설로 분류한 결과 대부분 사회적으로 인지하는 보편적인 유익·유해성과 일치되는 경향이나 PC방의 경우, 기성세대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데 비해 오히려 청소년들은 유익시설로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용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억제적 측면이 아니라 정보화사회 속에서 PC방이 건전한 청소년 정보문화를 창출하는 긍정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양성적 전환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유익환경 중 청소년문화교실·청소년캠프장 등의 시설이 부족하였으며 이용정도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나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유해환경 중에서는 유해성이 가장 높게 인지된 음란물노점상이나 단란주점 등의 이용정도가 주변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낮게 나타나 시설규제 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유해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유해환경 접촉율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임을 시사한다. 또한 유해환경의 주된 이용이유는 여가문화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나타났는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공간환경 이용율이 전반적으로 높으며 거주지에 따라서는 서울시가 중소도시나 군·읍·면에 비해 공간환경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보환경 중 청소년들은 TV와 컴퓨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주로 오락적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라 여가시간을 TV에 할애하는 정도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이유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란물과 관련하여 볼 때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율이 과거보다 높아졌으며 인쇄매체와 다중매체에 비해 음향영상매체의 접촉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공간환경이 열악한 군·읍·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접촉이 높게 나타나 이들에 대한 인터넷음란물 차단규제 및 정보선택 교육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청소년 선호도에 따른 유익환경 개발 및 교육·사회·법제적 측면에서의 청소년 보호가 협제적으로 이루어져 청소년들이 보다 근접환경 내에서 유익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심리특성·가족관계·가족자원만족도에 관한 연구 - 안성지역 중·고등학생과 부모를 중심으로 -

이 정 우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이 명 숙\* (한경대학교 생활관리학과)

이 미 선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이 연구는 도농 복합지역인 안성시에 거주하는 남녀 중·고등학생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심리 특성, 가족관계 및 가족자원만족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가족상담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가족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1999년 5월 동안에 이루어졌다. 안성시에 위치한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의 4개교를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용 설문지를 각각 100부씩 800부를 배부·회수하였고, 부실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586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SPSSPC+를 이용하여 빈도, 배분율, paired t-test,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한 경로분석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특성(내외통제성과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는가. 2)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관계(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에 차이가 있는가. 3)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자원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4)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심리 특성·가족관계·가족자원만족도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 그 부모와 자아정체감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즉 자녀집단보다는 부모집단의 자아정체감이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남학생과 그 부모집단간의 내외통제성과 자아정체감 모두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 집단이 자녀집단보다 내적 통제성향이 높았고, 자아정체감 수준도 높았다.

둘째, 가족관계변인에서는 남자 중학생이 그 부모들보다 가족응집성과 적응력 모두에서 낮았으며, 여자 중학생은 가족응집성에만 그 부모들보다 낮게 인지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남녀 모두 그 부모들보다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을 낮게 인지하였다.

셋째, 가족자원만족도에서는 자녀와 부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평균점도 3.23에서 3.56 정도의 중간 범위로 부모-자녀 모두 가족자원에 대해 매우 만족해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와 자녀 집단 모두에서 가족자원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정체감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정체감이 높을수록 가족자원만족도도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또한 가족응집성을 통한 간접효과도 발견되었다.